





25일 Market Index			
 코스피	8930.30	 코스닥	887.81
	(+459.28)		(-21.50)
 금리 (연이자율)	3.757	 환율 (원/달러)	1542.40
	(-0.015)		(+0.60)



백화점 '호조', 마트·면세점 '직격탄'

'초고환율' 유통가 희비
百 3사, 명품소비 늘어나고
연간 외국인 매출 1조 전망
대형마트, 신선식품 환율 부담
직소싱 확대, 원가절감 나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9원을
터치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국내 유통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고
환율이 수입 원가 부담을 키우며
대형마트와 면세점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반면, 원화 약세에 따른 외
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로 백화점
업계는 사상 첫 외국인 매출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같은
환율 급등이 업체별로 전혀 다른
성적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
이다.

2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 장
기화되면서 업체별 실적과 수익성
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엇갈
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백화점 업계는 고물가·고금리·
고환율로 내수 소비가 둔화된 상
황에서도 외국인 관광객과 명품
소비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5월 외국인 매출은
롯데백화점이 110%, 신세계백화
점이 137%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

승세를 보였다. 원화 약세로 한국
쇼핑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데
다 명품·주얼리·시계 등 고가상품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된 영향이
다. 이에 따라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의 연간 외국인 매
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
파할 전망이다. 다만 환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명품 브랜드의 공
급가 인상 가능성이 있어 성장세
지속 여부는 내수 회복에 달려 있
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장비구니 물가와 직결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
M)은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

트와 SSM 매출은 식품군 부진으
로 각각 5%, 8% 감소했다. 활라스
터, 연어, 수입 과일 등 신선식품은
환율 변동 부담을 기업이 흡수하기
어려운 품목이다. 이에 이마트는
연어 결계 통화를 다변화하고 새우
수입선을 조정했으며, 롯데마트는
대량 계약과 직소싱을 확대하는 등
원가 절감에 나섰다. 일부 업체는
원산지를 다변화하며 대응하고 있
지만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는 평가가 나온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
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
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
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
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남아공에 충격패... 32강 '먹구름'

24일(현지 시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대
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에서 0-1로 패한 대한민국 손흥민이 아쉬워 하고 있다. <관련기사 L2면> /뉴스

美 상장 SK하이닉스... 주가 추가상승 기대감

주가 13% 올라 291만7000원
신주 발행, 설비 투자 이어져
메모리 공급 확대 등 긍정요인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진출
소식이 주가가 강세다. 나스닥 상
장으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스닥 시장 상장시 외국계 투자
자 접근성이 좋아지고, 유동성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13.06% 상
승한 291만7000원에 마감했다.
장 중 한 때 298만7000원까지 치
솟았다.

미국주식예약증서(ADR) 나스

닥 상장을 위해 최대 45조4535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
란 소식이 호재가 됐다.

SK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하
면 주가 상승의 추가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장
기 공급 계약이 늘면서 내년, 내후
년 실적도 유례없이 좋을 것이란 전
망이 많다. 증권사들은 내년 SK하
이닉스 영업이익이 450조원대에 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압력에서 주식 가치 가
회복하는 효과가 있지만 향후 설비투
자로 메모리 공급능력과 수익성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7년 고대역폭메모리(HBM)
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5.3%에서 43.7%로 상향했다"면
서 "이를 반영한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449조원으로 3.3% 올려
잡았다"고 했다.

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나 나
스닥100지수 등에 편입될 길도 열
린다. 앞서 상장한 TSMC도 대만
본주 대비 10% 이상의 프리미엄
을 받고 거래되고 있다. 김 연구원
은 "ADR 상장 이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 편입 가능
성을 기대한다"면서 "공모 기준
기준 시가총액(300억달러)은 SO
X 지수 내 25위에 해당한다. 1:0.
1 발행 비율로 1억7900만주가 상

장돼 거래량 조건도 무난하다. 내
년 9월 정기변경에 편입될 것으
로 전망하며, 글로벌 SOX 지수
추종 수급의 유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은 "ADR 상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ICE 반도체 지수,
나스닥1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생겼다"며 "지수 편입 시점은
나스닥100이 가장 빠를 것이
다.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가장 큰 지수가 가장 빠르게 편
입이 예정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반도체 성장 효과, 지방확산 못해 지방과 원원 '모두의 성장' 이뤄야"

李 대통령, 수보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5일
"일부 산업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
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
까지는 확산하지 못해 균형 발전
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
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
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
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높아진다고 지적한 셈
이다. 정부와 재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호남에 제2반도
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
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최태
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났다. 투
자 계획은 오는 29일 '국토공간
대전환 민간 합동회의'에서 발표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
대에서 제39차
수석보좌관회
의를 열고 "수
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
업에 대한 대
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
남 등으로 확
대하는 획기적
전략 산업 다
극화가 필수적
"이라며 "이
에 관한 구체
적인 청사진을
곧 국민 여려
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
고 했다.

이어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
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
는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
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28일 '제2회 6·25전쟁 남북자 기억의 날 기념
식' 개최
▲與 한정에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보호
법 발의 /사진 뉴시스

▲전북 찾은 정청래 "출마 선언 시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
▲김용민 '당대표 출마 여부'에 "전당대회 출마,
긍정적으로 검토 중"

▲김민석 "정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기본 입장
으로 최종 정리...국회 결정 존중"
▲한동훈 "반도체 산업, 與 명칭대전 전당대회용
출발 아냐"